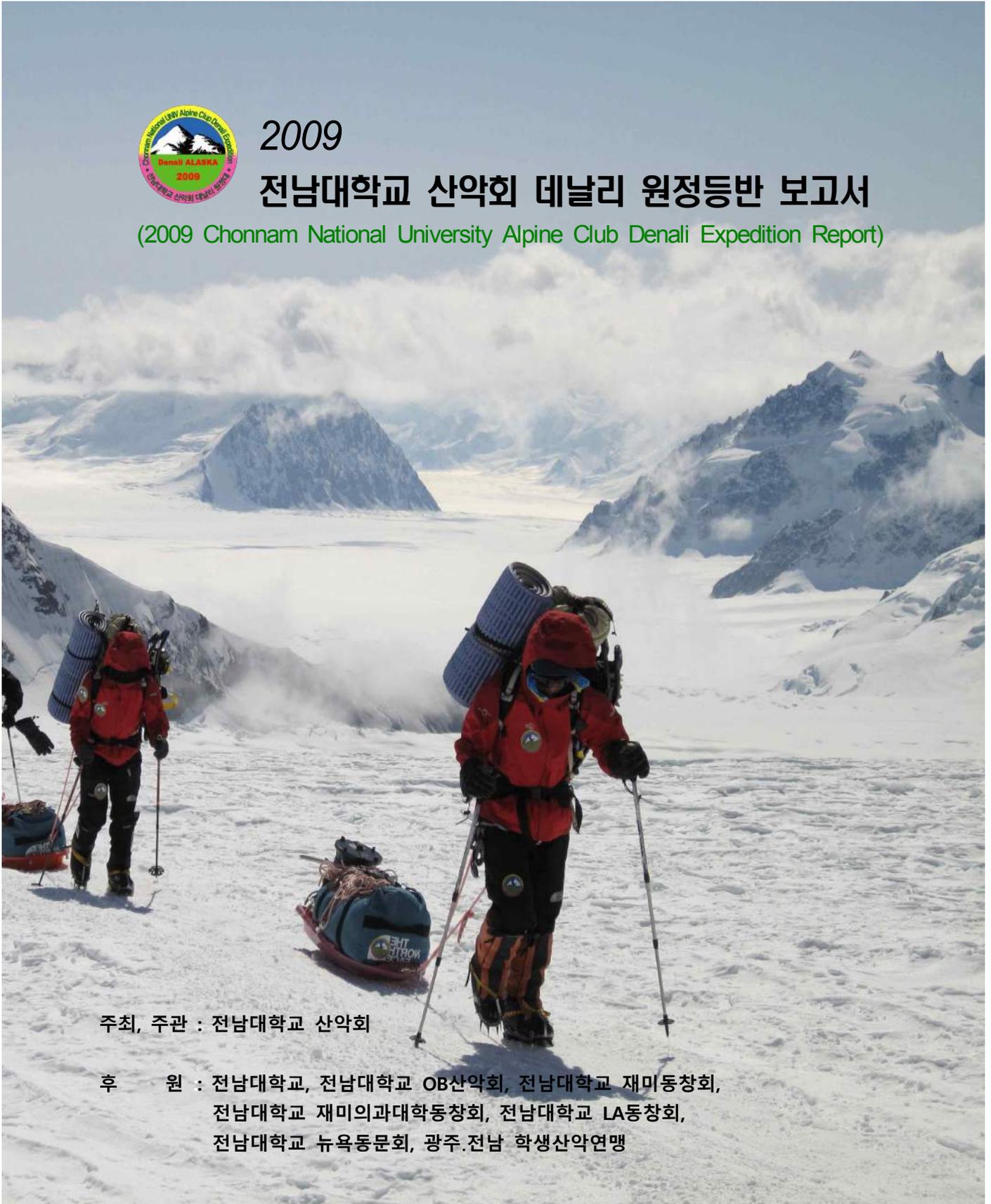




2009

## 전남대학교 산악회 데날리 원정등반 보고서

(2009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lpine Club Denali Expedition Report)



주최, 주관 : 전남대학교 산악회

후 원 :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OB산악회, 전남대학교 재미동창회,  
전남대학교 재미의과대학동창회, 전남대학교 LA동창회,  
전남대학교 뉴욕동문회,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 목 차

## 원정화보

1. 정상등정사진 \_4
2. 운행사진 \_6

## 인사말

- 전남대학교 총장(김윤수) \_10  
원정단장(김부용) \_11  
전남대학교 OB산악회 회장 (이정옥) \_12  
원정대장(박상규) \_13

## 제 1장 원정추진 및 준비

1. 원정 추진 배경 및 경과 \_14
2. 훈련일지 \_15
3. 발대식 및 해단식 \_19

## 제 2장 원정 개요

1. 원정개요 \_20
2. 운행결과 \_21
3. 원정대원 \_22
4. 데날리 개요 \_23
5. 등반루트 \_24

## 제3장 분야별 보고

1. 행정보고 \_25
2. 회계보고 \_29
3. 장비보고 \_32
4. 식량보고 \_38
5. 수송보고 \_42
6. 의료보고 \_44

## 제 4장 운행기록 \_46

- 부록1. 날씨정보 \_56  
부록2. 등반루트 및 예상소요시간 \_57

# 원정화보

## 1. 정상등정사진





## 2.운행사진



원정대 플랑카드



헌터 봉을 배경으로 한 랜딩 포인트 전경



설매를 끌고 C2로 운행 중인 대원들



웨스트 버트레스 주 능선에 선 대원들



엄지 바위 가는 길



웨스트 버트레스 능선



C5에서 본 데날리 패스

## 인사말(총장)

### 송고한 애교심에 경의를 표하며

김 윤 수(전남대학교 총장)



"하늘이 푸르다는 걸 알기 위해 온 세상을 다닐 필요는 없다"(괴테)고 하였지만 자연이 변함없는 경외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그 품안에 아무나 품어 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대학 데날리원정대가 지난 5월25일, 북미 최고봉인 데날리(6,194m) 정상 등정에 성공한 것은 참으로 기쁘고 가슴 뿌듯한 쾌거라 하겠습니다. 데날리 정상에 전남대학교의 이름을 새기고 건강하게 돌아온 대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땅 넓은 줄 모르고 살아가지 않기 위해 산과 골에 오르고 또 내린다고들 합니다. 산악인들은 숨을 조이는 고통과 끈덕진 하산의 유혹을 견디며 도전의지와 인내심을 키울 것입니다. 생사를 넘나들며 함께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슴을 뜨겁게 하는 동료애가 싹틀 것입니다. 수많은 봉우리를 품고 안으며 너른 품과 호연지기도 길러질 것입니다. 대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자연의 섭리와 겸손을 배울 것입니다. 이번 등정 소식이 그 무엇보다 기쁜 것은 바로 이 도전이 우리 전남대인에게 남겨준 정신과 교훈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이번 등정을 통해서 더 큰 자신감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도, 북미 최고봉인 데날리도 전남대인의 기개를 힘껏 격려하고 안아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우리가 못해 낼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모교사랑'의 이름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까지 넘어서 버린 큰 그릇의 전남대인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기 그지없으며 그 송고한 애교심에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 전남대인의 기개를 이어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전남대학교 산악회가 모든 전남대인의 마음 속에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특별히 박상규 원정대장과 김가영, 노경미 동문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 인사말(원정단장)



산이 있어서  
산이 있는 한 계속해서 올라야 한다.  
어쩌면 이는 우리의 운명이고 또한 소중한 권리인지도 모릅니다.  
지난 50년 전 우리의 선배님들이 산악회를 창립했을 때  
처음 전남대학교산악회에 입회 했을 때 우리는 이미 운명은 정해져 있었습니니다.  
이는 바로 우리의 모임을 50년 이상 굳건하게 이끌어 오고 계승 발전시켜온 정신이고 혼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를 계속해서 50년, 100년, 아니 영원히 지켜 나아갈 것이며, 올라갈 산이 있는 한 올라 갈 것이며, 산을 오르고 싶은 회원이 있는 한 우리는 참여하고 성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2009 전남대학교 산악회 데날리 원정대는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매우 의미가 깊고 유익한 원정이었습니다.

우리의 후배들이 이번 원정을 통하여 전남대학교 산악회 창립정신과 50년의 역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고, 우리의 해위 원정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다 변화 시키고 향상시킨 원정이었습니다.

북미 알래스카에 위치한 데날리봉은 히말라야 8천미터급 이상의 고산처럼 모든 악조건을 고루 갖춘, 특히 셸파와 포터의 도움이 전혀 없이 정상까지 가야하고, 랜딩 포인트에서 정상까지 4천미터 이상의 표고차를 극복해야 하고, 60마일 이상의 혹독한 칼바람과 영하 40도 이상의 추위를 극복해야하는 원정을 무리 없이 소수의 대원으로 정상을 오른 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그동안 우리는 91년 일본 북알프스 원정, 93년 알프스 3대 북벽, 97년 초오유 원정, 06년 초모랑마 원정, 08년 가셔브롬 1,2봉 원정 그리고 이번 데날리 원정과 더불어 다시 한번 전남대학교 산악회의 위상을 확인시켜준 등반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원정을 통한 소중한 경험을 더욱 더 승화시켜서 보다 발전된 전남대학교 산악회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2009 전남대학교산악회 데날리 원정단장 김부용**

## 인사말(OB회장)

결코 만만치 않은 신의 영역인 북미 최고봉 데날리 등정에 성공하고 돌아온 대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회는 알프스 3대 북벽, 히말라야 초오유, 에베레스트, 가셔브롬 등 해외원정등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도 몇몇 대학교를 제외하고는 없어지고 예전처럼 대학산악부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지금, 재학생과 젊은 OB 회원, 그리고 뉴욕에 살고 있는 박상규 원정대장이 꾸린 '2009 전남대학교 산악회 데날리 원정'은 끈끈한 형제애를 바탕으로 알피니즘을 추구하는 회원들의 열정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산악회에게 이번 원정은 새로운 50년을 향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반 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등정에 성공하기까지에는 꾸준한 해외원정으로 축적된 선배들의 등반기술과 노하우도 큰 몫을 하였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산악회는 더 어렵고 험한 루트를 향하여 도전하고자 합니다. 데날리 원정 준비에서 훈련, 등반의 과정이 담겨 있는 이 보고서가 다시금 데날리 원정을 준비하는 많은 산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원정대가 성공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습니다.

무사히 돌아온 대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데날리 원정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7 한국 초오유 원정대장**  
**전남대학교 OB 산악회장 이정욱**

## 인사말(원정대장)

자연은 우리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도, 훈련으로 정복되어야 하는 대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한 부분이며 만물에 이어진 아름다움과 장엄입니다. 산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고 삶의 의미를 배웁니다.



혹독한 추위와 60마일 이상으로 불어대는 강풍을 뚫고 3차 공격에도 전혀 지친 기색 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대원들에게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대원 한명의 힘은 적었지만 항상 서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대원들이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원정기간동안 선배와 후배가 화합하고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는 아름다운 산행을 하였고 모든 대원이 건강히 가정으로 돌아와 기쁩니다. 저는 이번 원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후배들과 소통하며 즐겁고 아름다운 휴가를 보냈습니다. 등산가는 산의 법칙에 따라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며 언제나 배워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산을 꿈꾸며 도전하는 산악후배들에게 이 보고서가 동기부여가 되어 세계를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원정을 꾸리는데 도움주신 선후배님들과 산악형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 전남대학교산악회 데날리 원정대장 박상규**

# 제1장 원정 추진 및 준비

## 1. 원정 추진배경 및 경과

연도	월 일	내 용	비고
2008	12. 14	전남대학교산악회 재학생 회장인 노경미(51기)와 김가영(OB, 46기)이 원정추진 관하여 논의	
	12. 21	제1차 훈련대원 모임 ( 대상산 확정 및 업무 분담 )	
	12. 27 ~ 28	제2차 훈련대원 모임 ( 무등산, 중주 및 비박훈련 )	
	12. 31	산악회 송년의 밤 행사에 데날리 원정 거론	
2009	1. 2 ~ 4	제3차 훈련 ( 한라산, 썰매 끌기 및 설상훈련 )	
	1. 15	제4차 훈련 ( 영주체육관, 체력테스트 )	
	1. 21	운영위원회의에서 데날리 원정 추진 거론	
	2. 6	OB정기총회에서 원정추진경과와 예산안 보고함	
	2. 1 ~ 8	제5차 훈련 ( 설악산, 빙벽 및 설상훈련 )	
	2. 19 ~ 21	제6차 훈련 ( 한라산, 썰매 끌기 및 설상훈련 )	
	3. 1	제7차 훈련 ( 3.1절 마라톤 하프 출전 )	
	3. 6	데날리 입산료 납부 완료 ( 2인 )	
	3. 11	전남대학교 OB산악회 운영위원회의에서 원정단장 김부용 임명 및 훈련대원 모집 공문 발송	
	3. 14 ~ 15	제8차 훈련 ( 무등산 남북주능 야간중주 )	
	3. 20 ~ 21	제9차 훈련 ( 무등산 무박중주 및 안자일렌 훈련 )	
	3. 23	미국의 박상규 회원이 대원 신청함	
	4. 1	데날리 입산료 추가 납부 완료 ( 1인 )	
	4. 9	OB운영위원회의 원정추진경과 보고	
	4. 11 ~ 12	제10차 훈련 ( 대둔산, 릿지, 주마령, 무전기테스트 )	
	4. 27 ~ 28	장비 및 식량구입, 짐 포장 완료	
	4. 30	원정대 발대식	
	5. 8	출국	
	6. 3	귀국	
	6. 11	해단식	

## 2. 훈련일지

### 제1차 훈련

일 시	2008. 12. 21 (일요일) 13:00~18:00
장 소	광주광역시산악연맹 사무실
참 가 자	김가영, 노경미
훈련내용	1. 원정개요 설명 : 대상산, 일정, 카라반과정 등 2. 훈련대원 신청서 작성 3. 훈련개요 설명 : 개인훈련, 체력테스트 및 원정에 필요한 훈련 논의 4. 업무분장 및 원정계획서 작성
특기사항	무등경기장 6km 달리기

### 제4차 훈련

일 시	2009. 1. 15 (목요일) 9:00~ 19:00
장 소	염주체육관 및 수영장
참 가 자	김가영, 노경미
훈련일지	1. 염주체육관 마라톤 코스 달리기 2. 염주수영장 폐활량 늘이기 적응훈련
특기사항	<다음 훈련 일정> 일시 : 2009. 2. 1 ~8 (6박 7일) 장소 : 설악산 일원

### 제5차 훈련

일 시	2009. 2. 1 ~ 8 (6박 7일)
장 소	설악산 일원
훈련내용	빙벽등반
특기사항	광주전남등산학교 동계반 훈련과 병행 실시

## 한라산 훈련

일 시	3차 : 2009. 1. 2 (목요일) 7:00 ~ 5일(일요일) 13:00 6차 : 2009. 2. 19(목요일) ~ 22일(일요일) 18:00
장 소	한라산 일원
참 가 자	김영필, 고경만, 김가영, 노경미
훈련내용	1일 : 광주 - 목포 - 제주 - 관음사 - 용진각 2일 : 러셀 및 주마링 훈련 3일 : 장구목까지 썰매끌기, 텐트 설치 및 철수 훈련 4일 : 관음사 - 제주 - 광주
특기사항	3차 - 조대이공 문종국 선배님 점심 제공, 광주까지 어프로치 6차 - 김영필 선배님 산행 참여하여 훈련 지도함. - 김재명(목포대OB, 85학번) : 하산 후 회식 제공, 천혜향 10만원 상당 제공 - 한국설악산악회 이창백 외 다수 : 상하행 어프로치 차량지원



썰매를 끌고 장구목을 오르는 노경미 대원

## 제7차 훈련

일 시	2009. 3. 1(일) 8:00~ 16:00
장 소	풍암지구 일대
참 가 자	김영필, 김미곤, 손용주, 김가영, 정선영, 김니다, 노경미
훈련내용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하프(21km) 코스 참여 - 김가영 1:56:16, - 노경미 2:10:53
특기사항	- 김미곤(서강94학번), 김니다(목대06학번) 같이 참가함. - 김영필 선배님 점심 식사 제공



마라톤을 끝내고

## 제8차 훈련

일 시	2009. 3. 14(토) 20:30 ~ 15일 7:30
장 소	전남대, 무등산 일원
참 가 자	김가영, 노경미
훈련일지	1. 데날리 루트 공부 2. 무등산종주등반 (남동능선~북서능선 구간) - 야간종주 및 하중훈련, 삼중화 적응훈련
특기사항	- 데날리 루트 이미지 트레이닝

## 제9차 훈련

일 시	2009. 3. 19(목요일) 16:00 ~ 20(금) 9:00
장 소	무등산 일원
참 가 자	김영필, 고경만, 김가영, 김니다, 노경미, 박주현
훈련일지	야간종주등반 (새인봉~중봉 ~작고개 구간) - 안자일렌 및 하중훈련, 텐트설치 및 해체 훈련
특기사항	김영필 선배님 작고개 차량 어프로치 도움 주심. 산행 후 식사 제공

## 제10차 훈련

일 시	2009 . 4. 10.(토) ~ 11(일)
장 소	천등산 릿지
참 가 자	임도균, 김가영, 문석민, 노경미
훈련내용	릿지 등반 (코스 : 어느 등반가의 꿈) - 무전기 테스트
특기사항	- 임도균 선배님 차량 어프로치 도움 주심. 하산 후 식사 제공



무등산 작고개에서



천등산 릿지 등반

### 3. 발대식 및 해단식

일 시	발대식 2009. 4. 30.(목) 19:00 해단식 2009. 6. 11.(목) 19:00
장 소	강남회관
참 가 자	정순택, 박장일, 강정채, 박명선, 김재률, 정태영, 신한봉, 최정호, 임백환, 이정옥, 윤기현, 이교태, 송희태, 이계윤, 오성개, 이연근, 이은수, 백두인, 김용욱, 김영필, 임도균 외 재학생 일동



발대식 사진



등정보고 후 해단식 사진

# 제2장 원정 개요

## 1. 원정개요

**1. 대의명칭** : 2009 전남대학교 산악회 데날리 원정대  
(2009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lpine Club Denali Expedition)

**2. 대 상 산** : 북미 알래스카주 데날리 국립공원 데날리봉(6,194m)  
(Mt. Denali in Alaska Denali National Park)

**3. 등반루트** : 웨스트 버트레스 루트  
(West Buttress Route)

**4. 원정기간** : 2009. 5. 8 - 6. 3 (27일)

**5. 원정대원** : 원정대장 외 2명

**6. 등반목적** : 가) 알파인 스타일의 등반 능력 극대화  
나) 지속적인 고산등반 추진

**7. 원정결과** : 2009.05.25 오후 5시 30분  
김가영 대원 정상 등정

**8. 연 락 처** : 전남대학교산악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제1학생회관 400호  
☎ 062-530-0075

## 2. 운행일정

구 분	일자	일수	운 행 내 용	비 고
출국 현지준비	5. 8	1	광주→인천공항→앵커리지→탈키트나 (행정처리, 식량 및 장비 구입)	항 공 기 전용차량
	9	2		
현지접근	10	3	탈키트나→Landing Point	경비행기
	11	4		
	12	5		
등반	13	6	Landing Point→C1(2,400M)	짐 데포
	14	7	C1→C2(2,950M)	
	15	8	C2→C3(3,300M)	
	16	9	C3↔Windy Corner(4,050M)	
	17	10	C3→C4(B.C, 4,300M)	
	18	11	B.C↔Windy Corner	
	19	12	B.C↔헤드월 안부(4,800M)	
	20	13	휴식일	
	21	14	휴식일	
	22	15	B.C↔C5(5,200M)	
	23	16	1차정상공격(김가영,노경미)	
	24	17	2차정상공격(김가영)	
	25	18	3차정상공격(김가영)	
철수	26	19	B.C→C1	경비행기
	27	20	C1→Landing Point	
	31	24	Landing Point→와실라	
귀국	6. 1	25	와실라	항공기
	2	26	앵커리지	
	3	27	광주	

### 3. 원정대원

구 분	사 진	주 요 경 력
<p><b>단 장</b></p> <p><b>김부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1 전남대학교 산악회 입회</li> <li>▶ 95~98 광주전남산악연맹 이사</li>   <li>현재 ▶ 전남대학교 OB산악회 부회장</li> <li>▶ 광민산업 대표이사</li> </ul>
<p><b>원정대장</b></p> <p><b>박상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6년 전남대학교 산악회 입회</li> <li>▶ 1983년 도미 유학</li> <li>▶ 1986년 미국 일리노이대 석사 졸업</li> <li>▶ 동계 Mt.Marcy, Mt.Washington, Mt.whitney 등반</li> <li>▶ 2009년 전남대 산악회 데날리 원정 등반</li> <li>현재 ▶ 전남대학교 OB산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ew York Alpine Club Member</li> <li>▶ A sunshine glass &amp; aluminum INC., co-president</li> <li>▶ 미국 뉴욕 거주</li> </ul> </li> </ul>
<p><b>등반대장</b></p> <p><b>김가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년 전남대학교 산악회 입회</li> <li>▶ 2002년 광주,전남 등산학교 수료</li> <li>▶ 2004년 대통령기 등산대회 우승</li> <li>▶ 2006년 전남대 초모랑마 원정 등반</li> <li>▶ 2008년 전남대 가셔브롬 I,II 원정 등반</li> <li>▶ 2009년 전남대 산악회 데날리 원정 등정</li> <li>현재 ▶ 전남대학교 OB산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전남 등산학교 강사</li> </ul> </li> </ul>
<p><b>대원</b></p> <p><b>노경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년 전남대학교 산악회 입회</li> <li>▶ 2007년 광주,전남 등산학교 수료</li> <li>▶ 2007년 이후 설악산, 한라산 장기등반 다수</li> <li>▶ 2008년 전국체전 '산악-일반등산' 대학여자부 금메달 수상</li> <li>▶ 2008년 한국 청소년오지탐사대 대원 (유럽 스칸디나비아 탐사대)</li> <li>▶ 2009년 전남대 산악회 데날리 원정 등반</li> <li>현재 ▶ 전남대학교 산악회 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임산공학과 재학</li> </ul> </li> </ul>

## 4. 데날리 개요

### 1. 데날리 개요

미국 알래스카 주 중남부 알래스카 산맥 중심 가까이에 있는 북아메리카 대륙의 최고봉 (6,194m)으로서 앵커리지에서 북북서쪽으로 210km 떨어져 있으며 데날리 국립공원에 속해 있다.

이 산은 북면이 5,000m로 19km나 펼쳐져 있고, 남면은 3000미터의 표고 차를 가진 화강암이 카힐트나 빙하까지 드리워져 있다. 북위 63도로 북극에서 322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므로 추위가 심하고 기상이 불규칙하며, 낮이 약20시간 지속되는 백야현상과 높은 위도로 인해 고소증상이 히말라야 지역보다 500~900미터 높게 나타난다.

산의 두 봉우리 중 정상은 남쪽 봉우리이며, 그 웅장한 봉우리의 위쪽 2/3는 만년설로 덮여 있으며, 길이가 48km를 넘는 것을 포함한 많은 빙하의 공급원이 된다.

흔히 사용하는 '맥킨리'라는 이름은 1896년 다른 탐광자인 윌리엄 A. 디키가 붙였는데, 그 해에 미국 대통령이 윌리엄 맥킨리를 기념해 명명하였으나 1980년 미 의회가 이 산의 본래 이름이었던 '데날리'로 환원하였다.

### 2. 데날리의 등반루트

1900년대 초 데날리는 주로 북쪽 멀드로우 빙하를 거쳐서 오르는 등반이 행해졌다. 이후 데날리의 서쪽과 남쪽, 동쪽 등에 개척된 루트는 모두 21개에 이른다.

- 1) 북쪽 루트 : 파이오니아 리지, 위커섬 월의 캐나다인 루트, 하바드 루트 등 3개
- 2) 서쪽 루트 : 웨스트 버트레스, 노스웨스트 버트레스, 웨스트 립, 웨스트 림 등 4개
- 3) 남쪽 루트 : 사우스 버트레스의 1954루트, 사우스이스트 스퍼, 램프 루트, 리얼리티 리지, 아이시스 페이스, 리지 오보 노 리턴 등 6개
- 4) 남면 : 캐신리지, 아메리칸 다이렉트, 밀란 크리스삭 메모리얼, 사우스웨스트 페이스, 체코 다이렉트 등 5개,
- 5) 동쪽 : 이스트 버트레스의 1963루트, 카타콤 리지, 트렐레이카 등 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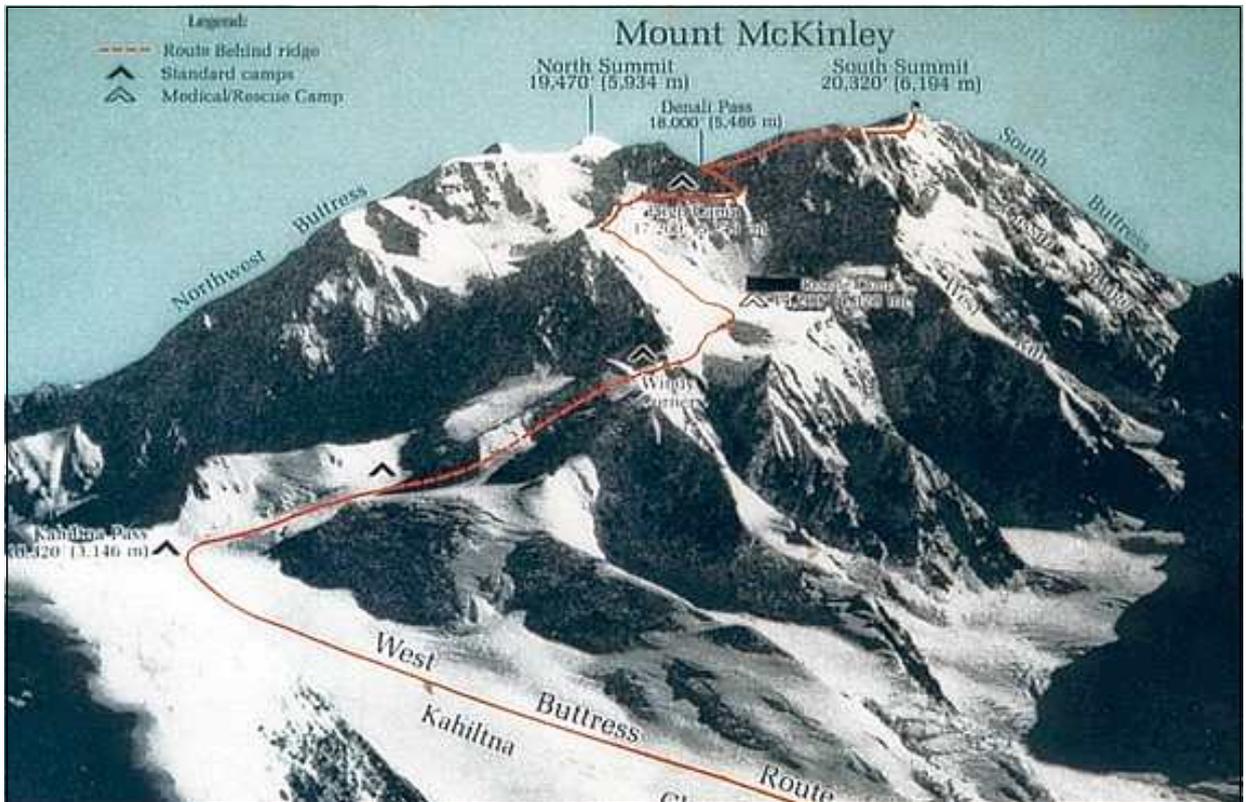
### 3. 데날리의 등반사

1794년 조지 밴쿠버에 의해 처음 발견된 맥킨리는, 원래 이름은 데날리였고 에스키모어로 "가장 높은 산" 이란 뜻이다.

물리학자 프레데릭 A. 쿡은 자신이 정상에 올랐다는 거짓 주장을 널리 퍼뜨리고 다녔는데, 이것이 자극이 되어 1910년 2명의 탐광자 윌리엄 테일러와 피터 앤더슨이 북쪽 봉우리를 등정했다.

1913년 6월 13일 허드슨 스톡과 해리 카스턴스가 미국의 탐험대를 이끌고 진짜 정상인 남쪽 봉우리를 정복했으나 하산 도중 실종되었다. 한국에서는 1979년 고상돈, 이일교, 박훈규씨가 초등했으나 하산도중 고상돈, 이일교씨가 사망했다. 그러나 여러 팀이 시도했다고 해서 등반자체가 수월한 것은 아니다. 히말라야보다 경비가 적게 들고, 어프로치가 쉬우며, 다양한 등반루트, 수월한 행정처리 등의 유리한 조건 때문에 매킨리지역에 많은 팀들이 몰리고 있기도 있지만 무 포터, 무 셸파의 조건하에 대원들이 모든 역할을 다해야 하고 랜딩 포인트에서 정상까지 약 4000미터의 표고차를 극복해야하는 등의 난점이 있기도 하다.

## 5. 등반루트



웨스트 버트레스 루트 (서쪽 루트)

# 제3장 분야별 보고

## 1. 행정보고

### 1) 국내 행정

강릉대 산악회 김영미 선배님의 2005년 매킨리 원정 자료(책자, 지도)를 통해 사전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다.

#### (1) 국내 대행사

국내 대행사를 이용하면 입산신청, 항공권 예매 등 국내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강가딘 투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519호 강가딘 투어  
Tel 02-737-9981 Fax 02-737-9982

#### (2) 입산신청

최소한 등반 70일 전에는 레인저 사무실로 입산 신청을 해야 한다. 등반 인원을 1500명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우리 팀은 국내 대행사를 통하여 오갑복씨에게 전해지고, 오갑복씨가 레인저 사무실을 통해 신청하였다.

#### ■ 입산 신청서 양식

매킨리 원정대 입산신청서 단체정보 페이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Interior

#### GROUP INFORMATION

레인저 사용란	원정대 기록란(한글사용)
EXPEDITION NAME:(영문으로 된 원정대명칭/ 이름이 없으면 한글로 기록 하십시오.)	
NUMBER IN PARTY:(원정대원 총인원)	
MOUNTAIN(등반 할 산명칭)	
ROUTE:(등반 할 루트명칭)	
AIR TAXI SERVICE: 사용 할 현지항공사 이름	Hudson Air
DEPARTURE DATE: (입산일자를 기록 하세요..)	
RETURN DATE:(하산 일자를 기록 하세요)	
LEADER'S NAME (first, last): (등반 대장의 이름을 기록하세요)	

단체 경비를 지불 할 비자 혹은 마스터 크레딧카드 번호	
크레딧 카드 유효기간	
참고사항:1>본 서류는 입산일 70일전까지 알라스카트레킹사에 도착하여야 합니다.2>데날리 국립공원 레인저에 일단 지불하신 입장료는 반환이 안됩니다. 3>입산신청서 작성과 함께 알라스카트레킹사에 행사경비를 전체금액에서 2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4>계약 취소 시에는 계약금 전체 액수의10% 환불하여 드립니다.5>행사30일 안에는 취소 시에는 전액 환불이 안 되는 점을 참고 하십시오.	

**등반 대원의 개인정보 페이지 INDIVIDUAL INFORMATION** (각 대원이 1부씩 작성하여  
송부하십시오.)

레인저 사용란	원정대 기록란(한글사용)
FIRST NAME: LAST NAME:(여권의 영문이름 "예" Gil Dong Hong)	
DATE OF BIRTH 생년월일:	
AGE 나이	
SEX: 성별: (해당 란에 영표를 하십시오)	남자 / 여자
MAILING ADDRESS:(현주소)	우편번호:주소:
PHONE 전화	집전화: 핸드폰: 직장: 이메일:

**등반대원의 비상연락처EMERGENCY NOTIFICATION**

레인저 사용란	원정대 기록란(한글사용)
NAME (first, last): 이름:	
RELATIONSHIP TO YOU:본인과의 관계:	
HOME PHONE 집전화:	
CALL PHONE 핸드폰:	
WORK: 직장전화:	
EMAIL ADDRESS: 이메일주소:	
ADDRESS: 비상연락처 주소:	

**대원의 등반경력CLIMBING HISTORY (Required – form will not be accepted if not completed)**

아래 해당란에 등반대원의 정확한 등산 경력을 3곳 이상 기록 하십시오.정확한 기록이 없을 때는  
신청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등산경력이 없을 때는 없음이라고 기록하십시오.

Year 등반년도	Name of Peak 산 이름	Route 루트명칭

**등반사고 경력 및 고산병력** 등산사고 경력이나 고산병력이 있는 대원은 해당사항을 별지에 기록하여  
첨부 하십시오.----- **등반대원의 서명 SIGNATURE DATE** /서명(싸인)은  
본인이 직접 하십시오.(필수항목)등반대원의 친필 이름을 본인이 쓰시고 서명한 날짜를 옆에  
쓰십시오.(꼭 필요한 항목입니다.) 서명요령 : 전체 원정팀의 각 대원이 서명과 이름 날짜를 1장에 흰  
종이에 진한 검정색 필기용 중간 크기의 싸인펜으로 적으셔서 스캐닝 하신 후 JPG파일로 저장하신 후  
첨부 파일로 함께 보내시면 서류 번역 작업 시 각자의 해당란에 삽입합니다.

### (3) 항공권 예약

항공권 예약은 강가딘 투어를 통하여 NWA(NORTHWEST AIRLINES)편을 이용하였다. 나리타와 시애틀을 경유하는 NWA항공편 이용하고, 시애틀에서 앵커리지까지 ALA(ALASKA AIRLINES)편을 이용하였다.

### (4) 기타 행정 업무

#### ① 여권

- 전자 여권으로 김가영, 노경미 대원 재발급 받음.

#### ② 비자

- 전자 여권이 있으면 무비자로 미국 여행이 가능. <http://www.cbp.gov/esta>

#### ③ 환전

- 전남대학교 학생회관 광주은행에서 환전.

#### ④ 출국 준비물

- 원정대 팸플렛(15부), 여권 복사본 1부, 필기도구, 계산기, 전자사전, 서류파일

## 2) 국외 행정

국외 행정은 오갑복씨가 처리해 주셨다. 예전에는 알래스카 트레킹 투어를 이용했지만 요즘은 정보가 많아져 자체적으로 현지 행정을 처리하는 팀이 많아졌다. 자체적 행정 처리는 돈이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현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사전 지식이나 언어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알래스카 트레킹사에 행사경비를 전체금액(1950\$)에서 20%를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현지 대행사 연락처

#### 알래스카 트레킹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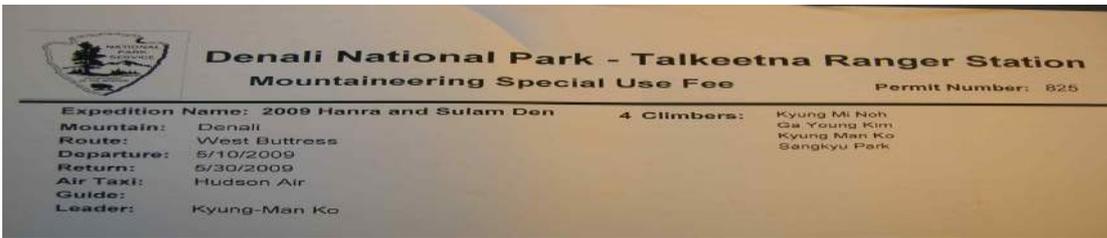
900 E.WESTPOINT DR.WASILLA, AK 99654 U.S.A. [110-121]

Tel 907-373-6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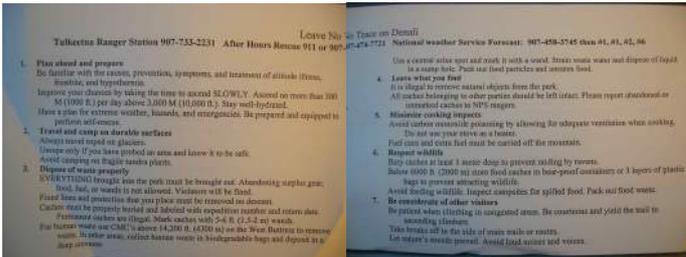
### (1) 입산신고

#### 입산신고와 레인저교육의 필수준비물 : 여권, 필기도구

탈키트나에 있는 레인저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으로 인원을 확인한다. 한국 등반대를 위해 한글로 된 웨스트 버트레스 등반 루트에 관한 PPT자료를 보여준다. 중간중간 오갑복 선배님이 해석도 해 주시고 질문에 답도 해 주었다. 약 1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쓰레기 봉투와 대변 봉투, CMC통을 팀별로 나누어 주고 끝난다.



랜딩포인트에 도착해 이 종이를 보여주면 휘발유통과 나가는 경비행기를 예약해 준다.



종이 뒷면에는 데날리 주의사항이 써져 있다.

**(2) 하산신고**

summit의 여부, 대원의 이상 유무를 묻는다. 전화로도 신고 가능하다.

**(3) 경비행기**

허드슨에어에서 제공하는 것

- 랜딩포인트의 썰매는 무료
- 화이트 가솔린(Coleman) 1Gal/\$10

※ 경비행기 이동 시 인당 125pounds(57 Kg)을 실을 수 있다.

구 분	설 명
<b>HUDSON AIR SERVICE</b> -(907)733-2321 -www.hudsonair.com	\$500 -1시간 30분 오래전부터 이용한 항공사로 한국 원정대에게 친숙하다고 한다. 하지만 최대 3명 밖에 탑승하지 못하고, 경비행기가 너무 오래되어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고 착륙시스템이 뒤떨어져 있다.
<b>Talkeetna Air Taxi</b> -(800)533-2219 -www.talkeetnaair.com	\$530 -1시간 30분 레이저 장착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경비행기로 굵은 날씨에도 운행하였다. 비행기도 커서 많은 수의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었고, 등반을 마친 대원들에게 맥주까지 서비스해주는 정성을 보여주었다.
<b>K2 aviation</b> -(800)764-2291 -www.flyk2.com	\$530 -1시간 30분



TAT 경비행기

## 2. 회계보고

원정을 준비하면서 환율의 급상승으로 고민이 많았지만 다행히 원정 갈 때쯤 환율이 안정세를 보였다. 환율을 꼼꼼히 체크하여 가능한 유리한 방향으로 환전을 했으면 한다. 회계를 담당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 나누면서 원정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처음에는 원정자금을 개인 부담으로 하자고 하였으나, 선배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많은 격려금을 모을 수 있었다.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 말씀 전합니다.

### 1) 자금 수입지출 총계 (환율 1280원으로 계산)

총 수입액(원)	총 지출액(원)	잔액(원)
16,990,000	16,990,000	0

### 2) 항목별 수입내역 총괄표

연 번	항 목	금 액(원)	비 고
1	대원분담금	6,380,000	대 장 530만원 대 원 108만원
2	OB 개인격려금	8,230,000	
3	전남대학교	1,500,000	전남대 100만원 총 장 50만원
4	기타격려금	880,000	
	계	16,990,000	

### 3) 항목별 지출내역 총괄표

연번	항목	지출 금액(원)			비 고
		국내	현지	합계	
1	훈련비	1,103,540		1,103,540	훈련식대, 교통비 등
3	행정비	4,395,550	7,993,600	12,389,150	항공료, 입산료, 대행료, 화물 통관료 등
4	장비비	75,000	457,660	532,660	등반, 취사 등
5	식량비	384,310	475,710	860,020	등반, 취사 등
6	보고서비	500,000		500,000	
7	매식비	18,700	380,000	398,700	
8	기타	522,370	683,560	1,205,930	계획서, 엽서, 발송 등
합계		6,999,470	9,990,530	16,990,000	

### 4) 도움 주신 분들

소 속	이 름	내 용 (원)	비 고
전남대 OB산악회	김훈봉	50,000	
전남대 OB산악회	김재률	200,000	
전남대 OB산악회	박향식	100,000	
전남대 OB산악회	김부용	1,000,000	
전남대 OB산악회	송희태	200,000	
전남대 OB산악회	김희영	1,000,000	
전남대 OB산악회	오성개	130,000	
전남대 OB산악회	이연근	100,000	
전남대 OB산악회	김용욱	400,000	
전남대 OB산악회	박헌주	300,000	
전남대 OB산악회	이광복	100,000	
전남대 OB산악회	송여진	100,000	
전남대 OB산악회	김영필	2,000,000	
전남대 OB산악회	김창한	100,000	
전남대 OB산악회	김수영	50,000	
전남대 OB산악회	윤현식	200,000	
전남대 OB산악회	방경환	100,000	
전남대 OB산악회	임도균	100,000	
전남대 OB산악회	박지순	200,000	
전남대 OB산악회	안선희	50,000	
전남대 OB산악회	양형렬	100,000	
전남대 OB산악회	김나연	100,000	

전남대 OB산악회	이광호	100,000	
전남대 OB산악회	장 희	100,000	
전남대 OB산악회	한석천	100,000	
전남대 OB산악회	한규성	100,000	
전남대 OB산악회	유명희	100,000	
전남대 OB산악회	김현성	50,000	
전남대 OB산악회	최지환	100,000	
전남대 OB산악회	임준철	100,000	
전남대 OB산악회	문준연	100,000	
전남대 OB산악회	박근영	50,000	
전남대 OB산악회	원정일	100,000	
전남대 OB산악회	김성석	200,000	
전남대 OB산악회	김현준	50,000	
전남대 OB산악회	함경준	100,000	
전남대 OB산악회	정종천	100,000	
전남대 OB산악회	김재우	100,000	
전남대 총장	김윤수	500,000	
전남대	학생지원과	1,000,000	
전남대 산악회	재학생	230,000	
목포대 산악회	재학생	100,000	
2008 오지탐사대	엄홍길	300,000	노경미 친분
2008 오지탐사대	대원일동	50,000	노경미 친분
전남대 교수	박현우	100,000	박상규 친구
무등클라이밍센터	봉상수	100,000	노경미 친분
합 계		10,610,000	

### 물 품 찬 조

소 속	이 름	내 용	비 고
전남대 OB산악회	임백환	김치, 된장 등 반찬류	30만원 상당
전남대 OB산악회	박현주	고소한의약품	50만원 상당
조선대 산악회OB	최경석	건강보조식품	20만원 상당
목포대 산악회OB	김재명	훈련 식사 및 천혜향	30만원 상당
등산장비점 "세레또레"	박남수	윈드 자켓 등 의복류	100만원 상당
등산장비점 "에코로바"	송형근	눈삽 등 원정장비류	50만원 상당
등산장비점 "산으로"	김희준	고소내의 등 의복류	100만원 상당
조선대 교수	김익모	앰블럼 도안 제작	
전남대 OB산악회	김영필	이동차량, 식사, 훈련 지원	
전남대 OB산악회	백두인	수영훈련, 팸플렛 제작 및 발송	
전남대 OB산악회	한성필	훈련 식사	
전남대 OB산악회	윤현식	훈련 식사	
전남대 OB산악회	오성개	훈련 식사	
전남대 OB산악회	임도균	훈련지원, 이동차량, 식사	
전남대 OB산악회	최지환	훈련지원	
강릉대 OB산악회	김동영	이동차량, 식사, 훈련지원	
제주설암산악회	박철홍	제주도 이동 차량 지원	
제주설암산악회	고경만	갈치, 원정 식량 지원	
조선이공대 산악회OB	문종국	훈련 식사	
박상규 친지		굴비, 젓갈 등	

### 3. 장비보고

장비는 타원정대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데날리 웨스트버트레스 루트에 맞게 준비하였다. 개인장비는 각자 구입하거나 기존 원정을 다녀온 전남대 산악회 선배들에게 빌려 사용하였고, 미국에 계신 박상규 대장님은 필요한 모든 장비를 인터넷 또는 현지 장비점에서 구입하였다.

개인장비 중에서 고어텍스 상의와 파워스트레치 바지, 배낭은 세레뜨레 주월점 박남수 선배님의 도움으로 로우알파인 현석재 과장님에게 지원을 받아 사용하였으며, 고소내의, 파일장갑 외 다수의 의류를 산으로(saneuro) 김희준 선배님께 협찬받아 사용하였다. 공동장비 중 코드슬링, 가스버너, 눈삽 등은 에코로바 주월점 송형근 선배님이 지원해주셨다. 특히 박상규 대장님과 친분이 있는 조대미대 김익모 교수님께서서는 데날리 원정대 앰블럼을 만들어주셨다.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1) 등반구

##### (1) 등반로프

6mm\*35m를 기본 안자일렌용으로(4인 기준) 랜딩포인트에서 B.C까지 사용하였으며, 정상 등정 시에는 공격대원이 2명이어서 무게를 줄이기 위해 1/3만 잘라서 사용하였다. 비상용으로 5mm\*60m 1롤을 준비하였으나 끝까지 사용하지 않고 등반을 마쳤다.

##### (2) 썰매연결줄 및 고정줄

8mm와 5mm 두 종류의 코드슬링을 준비하였다. 8mm는 썰매연결줄로 썰매에 배낭 혹은 안전벨트에 각각 카라비너로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5mm는 썰매에 카고백을 고정시키는 고정줄로 사용하였는데, 썰매 가장자리에는 구멍을 뚫려있어 슬링을 연결하기에 수월하였다. 또다른 고정줄로 두꺼운 자전거고무줄을 사용하였는데 탄력이 있고 끝에 고리가 달려있어 썰매에 고정도 쉽다. 코드슬링보다는 자전거고무줄을 강력히 추천한다.



##### (3) 스노우바

썰매를 끌다가 경사가 심한 곳에서 쉴 때, 혹은 정상 공격시 위험한 순간에 사용하기 위해 개인당 1개씩 준비하였으나 실상 텐트 고정용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기존 원정대에서 제작하여 사용했던 것을 가져갔으며 가볍고, 강도도 좋았다.

##### (4) 표시대, 표식기

와실라에 위치한 대형마트에서 대나무를 구입하였고, 허드슨항공사에서도 얇은 대나무를 팔아 두 종류를 준비하였다. 캐쉬용으로 총 5개 정도가 필요하며, 남는 것은 텐트 고정용으로

사용하였다. 랜딩포인트에는 모든 팀이 짐을 묻어두기 때문에 표식기는 눈에 띄는 큰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찾기 쉽다. 우리는 안전제일 표식기를 사용하였다.



랜딩포인트 표식기  
(표식기는 눈에 크게 될수록 좋으며, 캐시 번호표와 함께 붙여둔다.)

## (5)지도

탈키트나 레인저 사무실에서 나누어주는 브로셔에는 데날리 국립공원의 전체적인 위치와 웨스트 버트레스 루트 사진이 선명하게 잘 나와있다. 등고선이 나타나 있는 세밀한 지도가 필요하다면 레인저 사무실 근처 gift shop에서 구입 가능하다. 국내 준비 시 초고리산악회의 정보현 선배로부터 등반루트사진 및 소요시간 등의 자료를 구할 수 있어서 코팅하여 갔는데 운행 시 많은 도움이 되었다.

## 2) 막영구

### (1) 텐트

랜딩포인트에서 BC까지는 3-4인용 밀레 크로우돔을 사용하였고, C5에서는 노스페이스 3인용 텐트를 사용하였다. B.C에서 대원 4명이 4인용 텐트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적은 느낌이었다. 등반 일수가 적더라도 B.C용 텐트는 대원 수보다 좀 더 큰 것을 권장한다.

### (2) 눈삽

한국에서 플라스틱 눈삽을 빌려가 사용하였으나, 알래스카 눈의 크러스트 상태가 좋기 때문에 현지 REI 장비점에서 알루미늄 눈삽을 구입해 가는 것이 좋다.

## (2) 눈툭

한국 양동시장에서 구입한 폭이 큰 눈툭을 구입해 갔다. 눈블럭을 만들 때 혹은 구덩이를 팔 때에도 톱으로 썰어서 눈삽으로 파면 잘 퍼진다.

## 3) 포장 및 수송

### (1) 단프라박스

깨지기 쉬운 물품 및 부서지기 쉬운 과자류를 포장해 갔다.

### (2) 아이스박스

아이스박스에는 조기, 갈치류, 삼겹살, 젓갈 등을 담아갔다. 우리 팀은 베이스까지 이동하면서 사용하였고, 장기 등반 시에는 랜딩 포인트에 아이스박스를 묻어놓고 부패하기 쉬운 음식을 데포해 놓으면 하산 후에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 (3) 반찬통

에어 카고 수송 시 냄새나는 음식들(김치,반찬)을 우려하여 큰 통에 겹겹이 포장하여 가져갔으나 그다지 부풀지 않고 세관도 무난하게 통과하였다. 텐트에서 반찬을 덜어서 먹을 때 사용하기 위해 작은 사이즈의 락앤락 통을 준비하여 가야야 했는데 그 점이 아쉽다.

## 4) 취사구

### (1) 버너류

미국에서는 가스보다 휘발유가 더 싸고, 랜딩 포인트 도착 시 인당 1갤런씩의 화이트가솔린을 주기 때문에 데날리 원정등반에서는 휘발유버너를 적극 추천한다. MSR 버너 중 위스퍼라이트익스퍼넨셜이 드래곤플라이에 비해 소음이 적고 화력도 괜찮다. 가스버너는 고소캠프용으로 예비로 가져갔으나 그다지 사용하지 않았다.

### (2) 버너갈판

20cm\*20cm 사이즈로 목판 제작하여 가져갔으나 다소 작은 느낌이었다. 합판 사이즈는 버너보다 좀 더 큰 사이즈로 반을 갈라 두 개를 붙여 접힐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다.

### (3) 코펠, 접시, 국자

압력밥솥에는 밥만 하고, 마실 물은 큰 코펠에다 전용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 장비 준비 시 접시나 국자 등의 세세한 것들의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작은 것부터 챙기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 5) 기타

### (1) 쓰레기봉투, 변봉투

입산 시 레인저사무실에서 주는데 모두 썩는 비닐이다. 녹색이 쓰레기 봉투이고, 흰 색이 변을 볼 때 CMC 통 안에 넣고 사용하는 봉투로 이것은 크레바스에 버려도 무관하다. 다음 변을 보는 사람을 위해 검정색 썩는 비닐을 준비해서 가는 것이 좋다.



### (2) 설피

오갑복씨가 운영하는 윈디코너에서 대여하여 갔다. 하산 시 마지막 날 눈이 많이 내려 C1에서 랜딩포인트 가는 길에 사용하였다. 설피 밑에 발톱이 크고 발 주위로 라운드가 큰 것이 신설에 유리하다.

### (3) 원정로고

박상규 대장님과 친분이 있는 조선대학교 미술학과 김익모 교수님께서 데날리원정 로고를 만들어주셨다. 지름 9cm의 스티커로 만들어 장비에 붙여 사용하였다.



데날리 원정대 로고



설피 (발을 중간에 넣고 노란 밴드를 조이면 착용된다.)

## 공동장비1

구분	품목	규격	수량	구입		비고
				국내	현지	
등반구	등반로프	6mm*35m	1동	●		
	코드슬링	8mm*20m	1동	●		썰매연결용
	코드슬링	5mm*35m	1동	●		썰매고정용
	비상로프	5mm*50m	1동	●		
	자전거고무줄	10mm*1m	2개	●		
	스노우바	50cm	4개	●		동방 대여
	표 시 대	1.5m	20개		●	항공사에서 구입
	표 시 기	5cm*20cm	20개	●		
	지 도		1개		●	
막영구	텐 트	3~4인용	1동	●		밀레 크로우돔
		2~3인용	1동	●		노스페이스
	은박매트리스		3개	●		
	눈 삽	플라스틱	1개	●		송형근 대여
	눈 톱		1개	●		양동시장 구입
	대나무		20개		●	
	온도계		1개	●		송형근 협찬
포장 및 수송	카고백		2개	●		
	단프라박스		1개	●		
	아이스박스		2개	●		
	김장비닐		6개	●		
	지퍼백	대,소	60개	●		
	반찬통	대,중	3개	●		
통신구	무전기	SENDER-145	3대	●		김영필 대여
	공 팩	AA*6개	3개	●		"
	핸드마이크		3개	●		"
	롱 안테나		1개	●		"
	배터리 AA Size	리튬	26개		●	무전기용
		보통	10개		●	예비용
기록구	메직펜	색깔별	5개	●		
	스케치북		1개	●		
수선/ 공구	청테이프		1개	●		
	박스테이프		1개	●		
	덕테이프		1개	●		
	수선테이프	색깔별	10장	●		
	케이블타이		20개	●		공항, 카고백수송시

## 공동장비2

구분	품목	규격	수량	구입		비고
				국내	현지	
취사구	압력솥	5인용	1개	●		
	코펠세트	중,소	1조	●		
	MSR 버너	위스퍼라이트	1개	●		
	콜맨 버너		1개	●		
	휘발유통	대,중,소	1개	●		
	가스 버너	캠프4	1개	●		
	EPI 가스		5개		●	장비점 구입
	깔대기		1개	●		
	버너깔판	20cm*20cm	2개	●		목판 제작
	바람막이		1개	●		"
	휘발유		4겔론		●	"
	후라이팬		1개	●		고경만 대여
	가 위		1개		●	
	물티슈	40매	1개			
	롤 화장지		5개	●		
키친타올		3개		●		
기타	손톱깎이		1개	●		
	원정계획서		1부	●		
	노트북	삼성 센스	1대	●		백두인 대여
	팜플렛		20부	●		
	회기 외		다수	●		
	A4용지		10장	●		
	엽 서		20장		●	
고스톱		1개	●			

## 4.식량보고

원정을 준비하다보면 건식 위주로 준비하게 되는데 우리 팀은 대장님이 준비하신 청국장과 경만이형이 가져오신 제주 은갈치, 영광굴비, 삼겹살 등 무게가 조금 나가지만 영양이 풍부한 식단으로 소화도 잘 하고 고소도 잘 극복하면서 항상 기운이 넘치는 등반을 할 수 있었다. 강남회관 임백환 선배님이 준비해주신 반찬과 박상규 대장님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영광 굴비와 첫갈으로 끼니마다 입맛을 잃지 않고 맛있게 식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식량을 준비하는 대원은 다른 대원들의 식성을 꼭 고려해서 식량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 1) 식단표

월	일	아침	점심	저녁
5	12 1	밥, 갈치 구이	식빵, 짬, 버터	밥, 닭볶음, 상추쌈
	13 2	누룽지, 청국장 (갈치)	행동식	밥, 두부부침, 삼겹살
	14 3	누룽지, 청국장 (갈치, 조기)	행동식	밥, 조기구이, 삼겹살
	15 4	육개장 떡국(닭고기, 건나물)	행동식	밥, 삼겹살
	16 5	누룽지, 청국장, 라면	행동식, 라면	밥, 미역국, 갈치구이
	17 6	누룽지, 미역청국장	행동식	밥, 미역국, 삼겹살
	18 7	누룽지, 청국장	짜파게티, 라면	밥, 미역국(조기), 조기구이
	19 8	누룽지, 북어국 (건해물)	라면	밥, 닭볶음
	20 9	누룽지, 북어국	라면	밥, 제육볶음
	21 10	누룽지, 미역국 (건해물)	떡볶이	밥, 갈치국
	22 11	누룽지, 북어국	행동식	알파미, 김치찌개
	23 12	알파미, 삼겹살찌개	떡라면	알파미, 삼겹살찌개
	24 13	알파미, 삼겹살 된장 찌개	닭죽 알파미	두부김치 바로 비빔밥
	25 14	버섯 비빔밥, 비프 알파미	행동식	밥, 청국장(갈치)
	26 15	밥, 미역청국장	행동식	밥, 닭볶음
	27 16		밥, 북어국	밥, 청국장(고추 칠리 소스)
	28 17	밥, 북어국	라면, 닭죽, 누룽지	밥, 미역청국장
	29 18	밥, 북어국	행동식	밥, 청국장(고추 칠리 소스)
	30 19	누룽지, 미역청국장, 멸치캔	행동식	치즈마카로니, 베이글(살라미, 닭가슴살), 치킨라면
	31 20	누룽지, 미역북어국(닭고기)	초콜렛푸딩, 쿠키	치즈파스타, 스프

### 2) 행동식

인당양	품목	중량	총수량	총중량	*4인중량	*4인구입개수	구입처
	파워바	60	3	180	720	12	박상규
파워젤	72	3	216	864	12	박상규	
스니커즈	20	15	300	1,200	60	Fredmeyer	
건과일	400g			1,600	1,600	박상규	
건과류	400g			1,600	1,600	박상규	
연양갱	50	5	250	1,000	20	해태	
고소미	40	3	120	480	12	오리온	
쌀과자	26	10	260	1,040	40	크라운	
마이구미	50	3	150	600	12	오리온	
후레쉬베리	25	4	100	400	16	오리온	
에이스	24	4	96	384	16	홈플러스	
웨하스	44	3	132	528	12	홈플러스	
마루(체리,호두)	4	12	48	192	48	해태	

마이쮸	4	22	88	352	88	크라운
총중량			1,244	4,976		

### 3) 식량 구입

구분	품목	중량(g)	개수	총중량(g)	구입수량	구입처
주식	쌀	10,000	1	10,000	10kg	동양식품
	누룽지	5,000	1	5,000	5kg	박상규, 김가영
	라면	120	20	2,400	20개	동양식품
	짜파게티	140	5	700	5개	동양식품
	떡국	300	2	600	2봉	동양식품
소계				18,700		
부식	청국장	180	20	3,600	20봉	박상규
	육개장	42	13	546	13개	오뚜기
	미역국	18	13	234	13개	오뚜기
	북어국	34	13	442	13개	오뚜기
	김	15	10	150	10개	청정원
	김자반	80	10	800	10개	진현식품
	깻잎	90	5	450	5칸	샘표
	김치	3,000		3,000	3kg	강남회관
	오징어젓갈	500		500	500g	강남회관
	갓김치	2,700		2,700	2.7kg	강남회관
	멸치볶음	1,400		1,400	1.4kg	강남회관
	깻잎조림	1,500		1,500	1.5kg	강남회관
	진미볶음	800		800	800g	집
	건채소	300	3	900	3봉	홈플러스
	복어포	80		80		백두
	오징어포	200		200		동성
	두절새우	100		100		인우무역
	건표고버섯	162		162		북한
	마른멸치	160		160	150g	제주
	무우말랭이	160		160		제주
마른고사리	134		134	150g	제주	
호박고지	126		126	3봉	제주	
건가지	66		66		제주	
소계				18,210		
특별식	닭고기	800	2	1,600	2마리	Fredmeyer
	삼겹살	1,200	4	4,800	4팩	동양식품
	은갈치	240	30	7,200	8팩	제주
	영광굴비	300	30	9,000	6팩	영광
	팝콘	120	3	360	3봉	Fredmeyer
소시지	90	12	1,080	12개	탈키트나	
소계				24,040		
조미료	소금	300		200	200g	집
	간장	200		300	300ml	집
	식용유	200		200	200ml	집
	고추장	60	3	120	1kg	홈플러스
	쌈장	500		500	500g	강남회관
	볶음고추장	500		500	500g	강남회관
	된장	500		500	500g	강남회관
고추칠리소드	250	1	250	250ml	동양식품	
소계				2,570		
기호식	커피	12	100	1,200	80개	맥심
	녹차	2	50	75	50개	설록
	레몬홍차	14	40	560	30개	국제식품

복숭아홍차	14	20	560	30개	국제식품
오미자차	10	20	200	60개	고려인삼
동글레차	2	50	75	50개	설록
꿀	800		800	800ml	제주아카시아
울무차	13	40	520	50개	고려인삼
쌍화탕	500	2	10,000	2통	중양한의원
옥수수수염차	2	409	60	50개	엔도르핀
<b>소계</b>			14,050		

## 4) 식량 후기

### (1) 동양식품

한국 식품을 파는 곳으로 한국 마트보다는 아니지만 이곳에서만 준비해도 무난할 정도의 다양한 종류의 한국 식품을 구입 가능하다.



### (2) 특별식

#### ① 마운틴하우스

봉 당 8000천원 정도하는 고가 알파미로 닭고기나 쇠고기를 섞어 단백질이 풍부하게 조리하여 고소에서도 맛있고 영양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다.

#### ② 떡볶이

강남회관에서 주신 볶음 고추장으로 달고 매콤한 맛의 떡볶이를 즐길 수 있었다.

#### ③ 팝콘

전자렌지용이나 팝콘하기 좋은 코펠이 있어서 돌려가며 약한 불로 조리하면 맛있는 팝콘을 먹을 수 있다. 텐트 안에서 주전부리로 요긴하게 먹었다.

#### ④ 삼겹살

동양식품에서 팩으로 파는 삼겹살을 샀다. 얇아서 금방 익고 국이나 볶음, 그냥 구워먹어도 좋았다.

#### ⑤ 갈치

경만이형이 제주도에서 직접 가져오셨다. 갈치탕이나 구이로 좋고 우리 팀은 국에 자주 넣

어 먹었는데 담백하고 단백질이 풍부함을 느낄 수 있었다.

⑥ 영광굴비

대장님 친지분이 영광에서 보내주셨다. 굴비 또한 구이나 국에 넣어 먹었다.

⑦ 닭고기

닭을 미리 삶아서 5등분하여 비닐로 포장하였다. 끼니때마다 한 봉지씩 양념장을 이용해서 닭볶음요리를 해 먹었다.



텐트 안에서 식사

## 5. 수송

### 1) 경비행기 (탈키트나 - 랜딩포인트)

허드슨항공사 경비행기의 경우 한 번에 3인이 탑승할 수 있으며, 인당 125pounds(57kg)을 싣는다. 등반에 불필요한 짐이나 신발 등은 출발 전 항공사에 맡길 수 있다. 항공사의 경비행기마다 실을 수 있는 사람 수와 짐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따져보고 항공사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 경비행기에 실은 카고 배낭 총 무게 370lb (약168kg/4인=약 42kg)

### 2) 썰매 (랜딩포인트 - C4)

랜딩포인트에서 B.C.(C4)까지는 썰매를 끌고 이동한다. 한 사람당 한 개의 카고에 짐을 배분하여 끌었다. 캠프에 도착하면 막영에 필요한 장비와 식량을 여분의 카고에 모아두고 사용한다.

- 대원별 짐 분배현황

구분	식량	장비
박상규	누룽지, 청국장, 짜파게티, 건과일, 간식, 치즈	버너2(MSR, 콜맨), 텐트, 눈삽, 은박 매트1
김가영	쌀6, 차1, 볶음고추장, 김치, 알파미 1, 건식, 청국장, 반찬, 나초8	압력솥, 등반자일, 눈삽, 무전기, 공기품, EPI5, 쓰레기봉지2, , 키친타올 3, 가스버너1, 제트보일1
노경미	쌀6, 김치, 반찬, 건나물, 쌈장, 볶음고추장, 떡국, 닭고기, 조미료, 쌍화탕2, 차봉지2, 건식	코펠세트, 휘발유통3, 버너갈판 2, MSR1, 멀티슈1, 후라이팬, 수저세트, 키친타올, 휴지

### 3) 짐 데포

#### (1) 랜딩포인트

본격적인 등반 전 하산 후 경비행기 대기 시간동안 먹을 식량을 데포한다. 예전 보고서에서는 대기시간이 길어야 3~4일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항공사의 결항으로 6일간 묶여있어야 했다. 데포 지점에 아이스박스로 7일치의 식량은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등반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랜딩포인트에 지내기 때문에 상큼한 오렌지나 음료수, 맥주 등 가볍고 입맛을 돋을 수 있는 주전부리를 데포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2) C1

B.C.인 매킨리 시티에서 하산하여 C1에서 하루 묵고 랜딩포인트로 향한다. 그러므로 C1에 하루정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데포 해 둔다. 하산해서 먹는 식사이므로 영양분을 보충할

수 있는 고기류가 좋을 것 같다.

### **(3) C3**

우리 대의 경우 B.C.까지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짐을 데포해 두었다. 설피나 썰매, 사용했던 쓰레기와 여분의 음식 등을 데포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하산할 때 그 곳에 묻어 두었던 식량들을 다른 팀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등반이 끝날 때까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므로 신중하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 **(4) 원디 코너 부근 짐 데포지**

B.C. 가기 전에 운행일 중 하루 짐 데포를 하러간다. B.C.까지 가는 길이 경사가 심하므로 무거운 썰매를 끌기에는 체력소모가 심하기 때문이다. 매킨리 시티에서 사용할 식량과 장비를 적당량 배낭에 메고 데포지에 묻고 온다. 짐은 B.C.에 도착한 다음날 찾아갔다. 이때 주의할 점은 C3에서 B.C.까지 가서 사용할 장비와 식량은 데포하지 말고 B.C.까지 챙겨가야 한다.

### **(5) C5**

우리 대의 경우에는 데포하는 운행 일정을 따로 갖지 않고 바로 정상캠프까지 가서 정상공격하고 하산하였다.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엄지바위 아래나 정상캠프에 텐트와 식량을 데포해 놓고 내려온다고 한다. 어느 경우가 맞다 틀리다는 아니지만 팀의 환경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이다. 정상캠프에는 바람이 세고 날씨가 변덕스러워 정상 공격할 수 있는 맑은 날씨를 만나기 어렵다. 최소한 3일 이상의 식량은 구비해야한다. 특히 데포할 때나 텐트를 칠 때에는 장비나 식량이 날아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 6. 의료

간단하게 준비했지만 그래도 사용하지 않은 의약품이 많았다. 3~4 종류의 의약품 위주로 사용하고, 바세린이나 후시딘 같은 상처 치료 연고가 많이 필요로 했는데 준비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중앙한의원 박헌주 선배님이 지원해주신 쌍화탕은 머리를 맑게 해주어 고소에 특효약으로 처방되었다.

### 1) 의료 준비 목록

#### (1) 내 복 약

구 분	품 명	수 량	구 분	품 명	수 량
종합감기약	콘택600	20 정	진통제	타이레놀, 아스피린	각 20 정
지사제	로페린	30 정	신경안정제	우황청심환	4 환
항생제	마이신	20 정	뇌산소결핍	시베리움	20 정
영양제	클로렐라	1000정	영양제	비타민C	50 정

#### (2) 외 용 약

구 분	품 명	수 량	구 분	품 명	수 량
근육통	붙이는 파스	1	소염진통제	안티프라민	1
안질환	안약	1	화상,외상,창상	리도아가아제	2
동상치료제	동상연고	1	입술 보호제	리베아	1

#### (3) 의료 소모품

품 명	수 량	구 분
꺼즈	2	상처 dressing
반창고(7.5 X 330)	2 Roll	상처치료용
1회용밴드	2 갑	상처보호 (혼합형1갑, 일반형1갑)

### 2) 사용 결과

#### (1) 타이레놀

고소 증세 예방으로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 복용하였다.

#### (2) 1회용 밴드

3중화와 발의 마찰력으로 물집이 생겼는데 다양한 크기의 일회용 밴드를 붙여 물집이 커지

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 (3)쌍화탕

아침에 일어나서, 낮 밤 가리지 않고 한잔씩 마시면서 고소를 극복할 수 있었다.

### (4)비타민 C

한번 복용할 때 2알씩 먹는다.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5)클로렐라

조선대학교 최경석 선배님께서 지원해주신 고급 영양제로 박상규 대장님이 좋아하셨다.



비타민 C와 클로렐라



중양한의원 박현주 선배님이 주신 쌍화탕

# 제4장 운행기록

## 운행일지 - 노경미

5월 8일

산악회 선배님들이랑 재학생들이랑 가족들한테 인사를 하고 버스에 올라탄다. 아직까지 실감은 잘 나지 않는다. 가는 길 외롭지 않게 영필이형이 함께 해 주셔서 든든한 느낌이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석민이형이 바로 나타난다. 온다고 했는데 안 올 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니 미안하고 고맙다. 이른 시간이라 식당이 안 열었는데 어느 비싸게 생긴 곳에 들어가 밥을 먹었다. 밥 먹고 나오니 보조가방을 하나 사러 이리저리 둘러보다 개인적으로 맘에 드는 색깔과 브랜드의 가방을 발견해 살려고 하지만 반발이 많다. 결국 형들의 권유로 연두색 가방을 샀다. 재우 형이 배웅해 주러 오셨다. 형들이 있어서 든든하다. 우리 비행기는 결항으로 부랴부랴 대한항공으로 바뀌지고 제대로 인사할 시간도 없이 탑승했다. 비행기에 타니 기내식 줄 때만 일어나고 내내 잠을 잤다.

앵커리지 도착, 상규형과 여수팀, 갑복아저씨가 기다리고 계셨다. 상규형과 포옹을 하고 갑복아저씨 차에 올라탔다. 갑복아저씨는 이곳 저곳을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식량구입과 장비구입을 하고 와실라 산장으로 돌아왔다. 와실라 산장에 오니 작년의 알래스카 오탐대원들의 흔적과 이야기들을 들으니 나도 작년의 생각이 새록 들었고,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 산악회 홈페이지에 글도 남기고 시차에 대한 신기함에 잠 못 이루는 밤이었다.



평생교육원 앞에서 형들의 배웅

## 5월 9일

장비 체크하느라 정신이 없다. 식량이 너무 무겁지는 않을까 부족하지 않을까 여러 의견들이 많다. 장비를 분배하고 쉬는 길에 갑복 아저씨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간다. hatcher pass 그곳에 가서 사진도 찍고 산장에서 너무 달았던 파이와 커피를 마셨다. 갑복 아저씨는 산장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할아버지가 차고 있던 장난감 시계가 참 인상 깊었다.



와실라 산장에서 대화나누기

## 5월 10일

와실라를 나와 탈키트나로 간다. 레인저 사무실에서 설명도 듣고 데날리 도장도 여권에 찍어 기념할 만한 증거를 남기고 경비행기장으로 간다. 여수 형들과 내가 먼저 출발하기로 한다. 처음 타는 경비행기에 마냥 좋고 신기했는데 몇 분 지나니 그 풍경이 그 풍경이다 보니 쏟아지는 건 졸음이다. 여수 형들은 사진 찍느라 정신이 없고 나는 자느라 정신이 없는데 약간 추워지는 것을 느끼니 데날리 산군에 들어섰다. 하얀 산이 무섭게 나를 반기고 꼭 부딪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겹겹이 갈라진 크래바스로 가득한 빙하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으로 급 하강을 하더니 헬기가 방향을 바꾼다. 날씨가 안 좋아 착륙하지 못하고 탈키트나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거의 랜딩 포인트가 코앞인데 돌아가다니 나는 바로 두 눈을 감았다. 다행인건지 불행인건지 우리의 헬기는 다시 탈키트나로 복귀하고 우리는 짐을 풀고 경비행기장에서 막영을 한다.



자전거 시험을 위한 가위바위보

## 5월 11일

날씨가 안 좋아 경비행기가 못 뜬단다. 어제 보았던 베테랑 아저씨는 오지도 않는다. 자전거를 타고 탈키트나를 돌아다닌다. 가만히 앉아있기에는 너무 아깝기에 마을 사람도 구경하고 건물도 구경한다.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니 빨리 등반하면 속 시원할텐데 하는 생각과 계속 이랬으면 하는 생각이 양쪽으로 작용한다.

## 5월 12일

탈키트나에 도착한지 2일만에 비행기가 뜬다. 첫날 타서 다시 돌아온 경험이 있어서 들떠있지 않고 피곤이 몰려 오는 것 같다. 형들이 먼저 출발하고 맥주 사러 시내를 나가려던 참에 사무실 직원이 영어로 뭐라한다. 대기하라는 뜻인 것 같아 사무실에서 기다렸다. 형들이 출발한 후 약 1시간 20분 정도 기다리니 경비행기가 돌아온다. 짐을 운반하고 얼른 올라탄다. 한번 봤던 풍경이라 잠이 쏟아진다. LP에 도착하고 텐트 치고 밥을 준비한다. 전 사람이 눈 식탁도 만들어 놓아서 그 곳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었다. 탈키트나에 지내는 동안 사 놓았던 상추를 가져가서 닭 볶음에 싸 먹으니 기가 막히게 맛있었다. 결국 데날리 산에 와서 첫 CMC 사용의 주인공은 내가 되었다. 여수 팀 형들이 나를 위해 화장실을 만들어 주고, CMC 비닐 깔고 싸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당황스러웠는데 해결하고 나니, 몸도 편해지고 금방 적응 할 수 있었다. 기록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가영언니가 깨운다. 많이 자면 고소를 잘 먹는다고 한다. 텐트 밖에 나와 준비해 온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다. 원정 간다고 신경 써 주신 분들께 보답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보현이형이 하나 부탁해 하나 더 그려드렸더니 좋아하셨다. 덩달아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완성된 그림을 붙잡고 이곳저곳 각도로 사진도 찍고 텐트로 돌아와 물 만들고 잤다.



랜딩 포인트 도착

## 5월 13일

LP를 벗어나서는 내리막길을 쭉 내려간다. 썰매가 지가 먼저 내려 갈려고 해서 뒤집어 지고 뒤에서 차고 난리라 힘이 더 든다. 광활하고 눈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평지를 계속 걷는다. 양 옆에는 이름 모를 산들이 매섭게 서있고 자꾸 보면 저곳의 초입이나 등반 루트는 어딜지 궁금해진다. 쉴 때마다 따뜻한 물을 마셔주니 힘이 나는 듯 하다. 눈에 빛이 반사되어 볼이 따갑다. 쉬면서 썬크림을 매번 발라주었다. 6~7시간 소요라는데 언젠가는 도착하겠지 하고 잡생각을 하다보니 5시간 만에 C1에 도착했다. 식량 정리를 하고 제일 중요한 화장실을 만들었다. 형들은 화장실 안 간다고 해서(하지만 다들 화장실을 이용하였다.), 나는 가야하니 성현이형한테 졸라 화장실을 만들었다. C1에는 크래바스가 있으니 똥 싼 CMC를 다음 캠프까지 가지고 안가도 된다. 나만 똥 싼다고 똥통 담당이었다. 물을 만들고 자기 전 고스톱을 치는데 3:1로 나를 공격했다. 하지만 나는 협공에 굴하지 않고 맞고 때려가며 잘 맞서 싸웠다.



C1으로 향하는 대원들

## 5월 14일

스키힐 구간... 오르막, 평지, 오르막... 썰매가 자꾸 뒤집어져서 힘든 날이다. C1을 떠나면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똥통은 크래바스에 버리고 왔다. 출발부터 아이젠을 잘못 차는 바람에 자꾸 뒤쳐진다. 가뜰이나 썰매가 이리저리 뒤집어지고 난리다. 짜증나고 땀나고 입도 마음도 타들어가는 느낌이다. 먼저 떠난 상규형을 드디어 만나 쉬는 시간을 가지고 썰매를 다시 정비하고 올라간다. 오후에는 뒤집어지지도 않고 속도가 난다. 이거다!

## 5월 15일

오늘은 경만이형의 짐을 더 들기로 했다. 생선을 들고 올라가는데 짐 조금 추가해도 별 느낌이 없다. 그 사이 사람들이 소화가 잘 되는지 CMC통이 목직하다. 형들은 나에게 많이 싼다고 하지만은 사실적으로 형들이 더 자주 가는 것 같다. 오전에 탈키트나 패스를 운행한다. 경사가 거의 없어 무리 없이 운행했으나 오후가 되자 햇빛이 짹짹, 몸이 무거워 지기 시작한다. 경사가 심한 오르막길이 들어서자 경만이형이 돌이켜서 끌자고 하신다.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 끄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썰매 무게가 문제가 아니고 올라가는 내 다리가 문제인 듯 한데..... 돌이 끌고 다시 내려와 또 올라갈 생각 하니 막막하기만 하다.



C3 텐트 사이트

## 5월 16일

C3에 하루 더 묵기로 한다. 윈디 코너를 지나 C4 가기 전 짐 데포지에 C4에서 사용할 식량을 묻으러 가다. 배낭에 짐 잔뜩 채우고 모터사이클을 지나는 것도 뒤에 나를 끌어당기는 이가 없으니 수월하게 올라간다. 모터사이클을 지나니 먼저 출발하신 상규형을 만나 안자일렌을 하고 간다. 4천대로 점점 올라가자 몸이 점점 무거워진다. 짐을 데포하고 하산하는데 머리가 자꾸 흔들려서 그런가? 아님 배가 고프건가? 옆구리가 무지 아픈데... 형들은 고소라고 한다.

## 5월 17일

잠을 못 자겠다. 점점 잠을 못 자는 날이 더 많아진다. 오늘은 썰매를 최대한 가볍게 메고 운행한다. 어제보다 더 빠르게 진행한다. 날씨도 뜨겁다. 시티에 도착하니 한양대 팀이 반갑게 맞이해 준다. 은혜언니가 준 오렌지 주스는 너무 감동적으로 맛있었다. 형들은 텐트를 치고 나는 저녁을 준비한다. 그런데 자꾸 무기력해지면서 어지러워진다. 완전 고소 먹었다.



베이스 입성 저녁식사

## 5월 18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부담스러워 진다. 몸을 일으키면 텐트 안에 눈이 내린다. 오늘은 데포했던 짐을 찾으러 간다. 고도를 낮추니 머리가 조금 깨끗해지는 것 같다. 내일 운행할 짐을 챙기자.

## 5월 19일

오줌 싸는 꿈을 꾸었다. 잠을 너무 못자는 것 같다. 입술에 물집이 생겼는데 오늘은 유난히 부어올랐다. 운행은 낮에 시작하자고 한다. 물을 끓이고 짐을 챙긴다. 헤드월 올라서는데 테라스 정도 올랐는데 형이 괜찮냐고 물어본다. 눈이 지끈거리고 뒷골이 땡긴다. 혼자 하산한다. 내려가는 길에 성현이 형이 데리러 오셨다. 내려오니 상규형이랑 보현형이랑 성현이형이

랑 메디컬 캠프로 간다. 가서 여러 검사를 받는다. 어느새 검사 받다보니 괜찮아 졌다. 산소 농도도 검사해 보니 75였다. 80이상이 올라가기 좋은 상태라고 한다. 나의 상태는 고소 증상이고 안정을 취하라고 했다. 여수 형들 텐트에서 약을 먹고 쉬다가 잠이 들었다. 경만이형과 언니가 내려온다고 하여 밥을 준비했다.

## 5월 20일

새벽 3시... 잠이 안 온다. 코가 막혀서 숨도 안 쉬어진다. 자는 것이 곤욕이다. 일어나니 몸, 얼굴이 온통 부어올랐다. 입술이 너무 부어서 무거울 정도였다. 물을 끓이고 텐트 청소를 하자고 한다. 다 끄집어내고 텐트 바닥도 다시 다지고 텐트를 다시 쳤다.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다 보니 한국 생각이 난다. 아 지금쯤 무덥겠지...

## 5월 21일

아침부터 바람이 분다. 여유가 따분이 되고, 언니들과 놀기로 했다. 중앙대산악부 혜란언니와 한양대 은혜언니가 텐트로 놀러 왔다.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스케치북에 방명록도 쓰고 맛있는 것도 먹었다. 혜란언니는 없는 살림에 나에게 이것 저것(핸드폰 고리, 밥이랑 등) 챙겨주고 눈썹도 그려주었다. 언니들은 저녁이 되어 밥을 하기 위해 가고 나는 물을 끓이기 위해 눈 블럭 하나를 떼어 왔다. 내일은 진짜 올라간다!



한국 원정대 팀 모두 모여서(전남대, 한양대, 여수, 제주)

## 5월 22일

8시간 운행 데날리빌리지 도착



C5

## 5월 23일

12시.. 운행 시작 후 초입에서 경미의 속도가 마이너스를 향한다. 배낭을 봤더니 불필요한 짐들이 많다. 정리 후 다시 출발! 이제는 속도가 난다. 하지만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져 3시간 만에 다시 하산하였다.

## 5월 24일

오늘도 데날리패스를 넘어서 정상공격을 시도하였으나 뒤돌아서고 말았다. 데날리 패스를 넘어서는 구간은 바람이 위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아래 반대편 사면을 오를 때에는 날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사면을 올라 여수팀이 데날리패스를 넘어 올라선 후... 나도 앞으로 나아가는게 괜찮다. 옷이 좋아서 그런지 춥지 않았고, 어느 정도 추위와 바람에 정상공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경만형의 호출에 다시 백을 하고, 스키 고글로 갈아끼웠다. 20분 운행을 하자 스키 고글에 낀 서리가 얼고, 바람에 한 발짝 올라서기가 어렵게 될 때쯤 하산하자는 경만형 말에 위를 쳐다보니 여수팀도 내려올 분위기다. 같이 등반하던 한양대팀이 측정한 풍속계에는 65마일이 찍혀 있었다고 한다. 14시 30분 힘들게 하산 후 텐트에서 3시간 취침. 일어나 청국장에 삼겹살을 넣어 끓인 국과 밥을 먹으니 기운이 난다. 베이스에서 무전이 온 상규형 말로는 모레부터는 날씨가 더욱 안 좋아지니 무조건 내일 올라가라고 하신다. 내일이 D-day다.

## 5월 25일 (김가영)

정상 등정일

9시 30분 텐트 밖에서 배웅하는 경미를 뒤로 하고 출발하려는데 어찌나 아쉬운지. 어제는

움직이지 않던 상업대 10명이 7시쯤 줄지어서 올라간다. 그 뒤로 한양대, 여수팀, 우리팀이 올라갔고, 어제보다 빠른 속도인 2시간 반만에 데날리 패스 사면을 통과했다. 어제보다는 바람이 잦아졌으나 아직도 거세게 얼굴을 때린다. 고개를 넘어서 큰 바위 옆에서 휴식을 취했다. 여기가 어제 여수팀이 백을 한 곳이구나. 2003년도에 데날리 원정을 왔던 여수팀 보현이형은 정상가던 날을 회상하며 루트를 자세히 알려준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풋볼필드까지 2시간은 더 가야해.”

가야하는 골목마다 스노우바와 표식기가 꽂혀 있어 길을 잃을 위험은 없었지만, 경험자의 조언만큼 도움이 되는 것은 없었다. 3시간 동안 걷다 쉬기를 반복, 바라클라바 속의 버프를 끄집어 내어 눈 밑에까지 덮어 두 겹을 만들지만 우모복 모자의 앞부분이 퐁퐁 열 정도의 추위는 계속되었다. 풋볼필드에 도착할 무렵,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지더니 날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다. 1시간 반 동안의 급경사를 올라 능선에 오르니 뒤에 포레이커와 헌터봉이 보이고, 상업대팀 중에는 이곳에서 사진을 찍고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마지막 캠프에서부터 칼날 능선까지 계속해서 안자일렌 앞부분에 서 있던 나는 지금 이 순간 천천히, 말없이, 조용하게 나를 뒤에서 지탱해 준 경만형에게 깊이 감사했다. 형은 너무나 숙련된 내게 너무 벅찬 최고의 파트너였다.

오후 5시 30분, 우리는 함께 데날리 정상에 올랐다. 같이 오른 모든 사람들이 환한 미소를 보이며 서로를 축하해 주었다. 처음 찍는 정상 사진이라 어색했지만, 형들에게 사진기를 넘기고 헌터봉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했다. 상규형, 경미야, 산악회 선후배님 모두 감사합니다.

하산 시작.

풋볼필드 내려오는 길에 베이스에서 만난 중앙대 헤란이를 만났다. 파트너가 고소적응이 안되어 하산해야하는 상황. 선배가 미안해서 울고, 후배도 눈물을 꼭 참는다.

산이란 뭔가?

무엇이길래 그토록 사람 맘을 열정에 불타오르게 하고, 아쉬움에 눈물을 흐르게도 하는가? 결코 산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산을 찾아 배낭을 꾸리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곳이다.

3시간 만에 내려왔을까? 썬크림을 가져오지 않아 하산 중에 얼굴이 많이 탔다.

21시 데날리 빌리지를 뒤로 하고 경미와 함께 베이스로 향한다. 기뻐하는 상규형 모습에 나도 무척 기뻐다!

3차례 시도 끝에 성공한 Summit. 나는 참 행운아인 것 같다. 도움 주신 분들에게도 보답을 잘 해야겠다. 상규형이 준비해주신 갈치국에 맛있는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풋볼필드



정상등정 후 하산... 형들이 반겨주었다.

## 5월 26일

정상 공격 후 하산...

이제 간다. 우리 애들도 가족들도 너무 보고 싶다. 썰매가 자꾸 넘어지면서 이런 저런 생각도 든다. 나의 앞날도, 가족들도, 친구들도, 선후배들도, 산악회도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지 무슨 일을 해야할지 명확하지 않다. 안녕 데날리아.



하산... 데날리 안녕

## 5월 27~31일

LP에 도착한지 5일째... 여전히 이곳인 내가 너무 싫어진다.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하늘보기와 밥 먹기. 식량도 떨어져 가고 목계도 하늘에는 아름다운 눈송이가 떨어지고 있다. 행여나 헬기소리에 입가에 미소가, 서로 흥분하며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부랴부랴 텐트 걷고 짐 싸서 활주로에 갖다 대면 허드슨 항공은 온다는 소식은 들리나 돌아갔다는 소식만 전해온다. 한국 팀 활주로 옆에 앉아 하늘만 쳐다보고 헬기 소리에 귀 기울이나 다른 외국팀만 오는 족족 빠져나가고 그냥 열만 받고 있다. 하루 이틀 앵커리지에서 뭐할까만 생각하다가 이제는 비행기 날짜에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바뀐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그런 현상 속에 사람의 생존 욕구에 대해 생각 해 본다. '식'이라는 이 생존 의무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

자꾸 하늘만 보게 되고 혹시나 구름이 사라지고 파란 하늘이 보이면 왜 이렇게 맑은데 오지 않나 하는 원망만 짜증만 계속 되풀이 하다 이 맑은 날씨가 헬기 올 때 다시 나빠지면 안 되는데 하는 조바심이 자꾸 생긴다. 그러다 계속 들리지 않은 헬기소리가 오후 5시가 지나면 모두 두 어깨 축 쳐져 다시 짐을 풀고 텐트를 친다. 이러기를 며칠을 반복하고 하루하루 체념과 포기 속에 작은 믿음과 희망으로 잠에 든다.

5월도 끝나간다. 가정의 달인데 너무 이기적이라서 나 좋은 것만 했던, 그래서 신경 하나 못 써준 가족들이 생각난다. 6월 3일이면 출국인데 이러다 비행기까지 못 타면 어쩌나 하는 생각과 앵커리지 관광은 꿈도 못 꾸고 가는 아쉬움에 미쳐간다. 처음에는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사람들, 하고 싶은 것들을 꿈꾸지만 이제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하고 싶지도 않다. 오직 이 곳! 얼른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

31일 7시 30분..... 갑자기 리사가 소리친다. 비행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소리다. 부랴부랴 짐을 싸고 이번에 진짜 간다! 2팀이나 갈 수 있다고 한다. 우리 팀이 첫 번째니 당연 탈출할 수 있구나! 경비행기에 올라타니 이제 살 것 같다. 돌아오는 길... 잠이 오지 않는다. 내가 있었던 이 곳, 무섭고도 영영 못 나올 것만 같았던 이 곳 하늘을 날고 있으니 새삼 아쉬움과 지난 회상, 자연에 대한 경계심도 생기는 듯하다. 들어가기도 나오기도 힘들고 지겹던 데날리. 진짜 안녕이구나!

## 부록1. 날씨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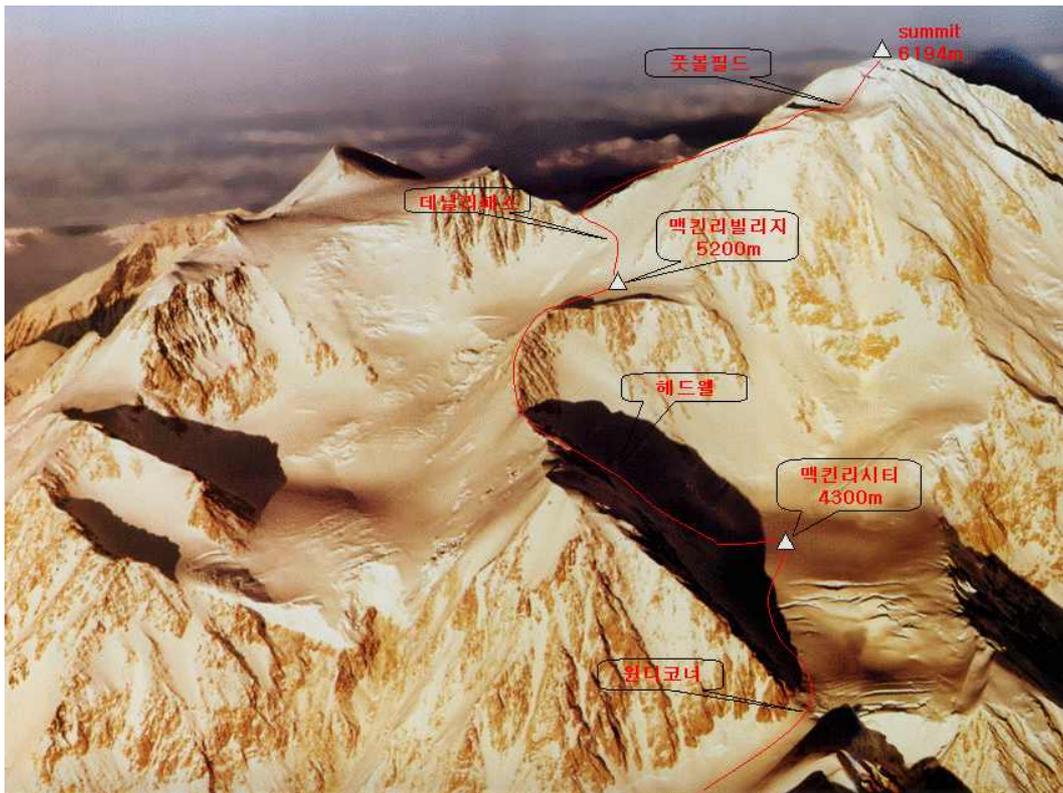
날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날씨	×	×	○	○	×	×	△	○	△	×	×	×	○	△	×	△
날짜	26	27	28	29	30	31										
날씨	○	×	×	×	×	×										

(좋음-○ 흐림-△ 눈,기상악화-×)

노경미 대원이 기록한 데날리 날씨정보이다. 오전에 날씨가 좋지 않았으나 운행했던 날은 △로 표시했다. (※데날리는 오전보다 오후 날씨가 더 좋음)

위 표를 보면 데날리의 날씨변화가 불규칙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베이스에서는 정확한 기상 정보를 얻기 위해 레인저 사무실을 자주 찾아가는 것이 좋다.

## 부록2. 등반루트 및 예상소요시간



**LP(2195m) → 내리막길 ( 40분) → C1 (2400m,6시간 20분) 북동빙하 초입**

- \* LP에서 썰매 및 연료 수령
- \* LP에 하산시 마실 음료수 및 비상식량 데포

LP에서 내리막길을 약 1Km정도 내려가서 빙하와 만나면 우측으로 본격적인 완만한 경사의 설원지대를 오르게 된다.  
오른쪽으로 첫번째 빙하 동빙하를 지나 두번째 북빙하 초입(캐신릿지 초입)과 스키힐 구간이 초입의 언덕 시작점이 C1이다.  
이곳에서는 맥킨리 정상이 가장 잘 보인다.

**C1 (2400m) → C2 (2950m,6~7시간) 스키힐 구간**

- \* C1에 하산시 1박 식량 데포

스키힐은 크게 세 구간으로 구분이 된다.  
첫 번째는 비교적 완만한 경사면이지만 길이가 긴편이다.  
두 번째는 짧은 반면에 경사는 급하다.  
세 번째는 설사면이 급경사와 완경사로 혼합되어 있고 이후 완만한 설사면이 나오는데 이곳이 캠프2 지역이다.

**C2 (2950m) → 탈키티나패스(3050m, 2시간) → C3(3300m, 2~3시간)**

C2에서 약간의 경사를 올라서면 탈키티나패스까지는 무난하게 진행한다.  
설원지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곳이 탈키티나패스이며,이 곳에서 우측으로 급경사를 짧게 올라서면 사면을 좌측으로 트래버스하고 다시 2시방향으로 진행하여 10시 방향으로 지그재그 올라서면 캠프3가 보인다.

**C3 → 모터사이클(50분) → 윈드코너(4050m,3시간) → 짐데포지(4115m,20분) → 맥킨리시티 (4330m,2~3시간)**

- \* 썰피 및 불필요장비 데포

이곳 부터는 크램폰 착용 및 안자일렌하고 운행을 한다.  
모터사이클 사면은 40~50도이며 안부에 올라서면 우측으로 완만한 경사를 올라가면 오른쪽 봉우리를 왼쪽으로 트래버스하여 올라가는 구간이 줄루힐이다.  
줄루힐은 햇볕이 들지 않은 설빙지역으로 40정도 경사를 이루고 있어 통과시 주의를 요한다.  
줄루힐을 올라서면 완경사로 이루어진 넓은 설원지역이 나오는데 등반루트는 설원지역 좌측 끝과 능선아래로 진행하며 멀리 윈디코너가 보인다.  
윈디코너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곳곳에 낙석이 보이며 상부에는 땅이 보일정도 이다. 경사는 모터사이클 수준이며 설빙지역으로 낙석을 주의할 것.  
윈디코너를 지나 등반을 하면 크래바스가 오른쪽으로 많이 형성된 지역을 좌측 능선쪽으로 가로질러 가는 중에 히든크래바스도 통과하여 운행하면 짐데포지가 나온다.  
데포지에서 스키힐정도의 사면을 지그재그 올라가는 중에도 곳곳에 많은 크래바스가 있고 또한 통과하게 된다.웨스트능선 가까이 가면서 완경사가 되는데 능선옆을 따라 진행하면 넓은 설원지가 나오는데 맥킨리시티이다.

**맥킨리시티(4330m) → 테라스 (2시간50분) → 헤드월안부(4800m,1시간50분)**

**→엄지바위(2시간) → 맥킨리 빌리지(5200m,1시간30분)**

- \* 입성신고 및 혈중산소농도 측정(VO2Max,80이상)
- \* CMC 수령

헤드월은 하단은 설사면 상단은 정빙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다.  
설사면은 모터사이클 수준으로 지그재그 올라서면 정빙지대가 시작되기전에 테라스가 있음. 이곳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 할 것.  
정빙지역은 70도 정도의 경사에 고정로프가 12피치정도 2줄로 설치되어 있다.  
오른쪽은 등반용 왼쪽은 하산용으로 이용된다.  
헤드월 안부에서 우측에 있는 큰바위를 좌측으로 우회하여 올라서면 본격적으로 웨스트버트레스 릿지구간이 시작된다.  
릿지구간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바위지대와 눈이 믹스되어 있는곳을 등반하게 되며 중간에 엄지모양의 엄지바위를 좌측으로 우회하여 통과를 하고 마지막 암봉을 좌측으로 돌아서면 넓은 빌리지가 있다.

**맥킨리빌리지 → 데날리패스(5500m, 3시간) → 풋볼필드(6050m, 2시간) →**

**라이프릿지 초입(1시간20분) → 정상(6194m, 50분)**

\* 빌리지 까지 하산시간은 3시간 정도

\* 데날리패스 올라갈 때는 특히 보온에 신경 쓸것.

캠ป์에서 데날리패스를 향해 설원을 가로질러 가면 설사면을 만나게 된다.  
완만한 사면은 올라 갈 수록 경사는 급해지며 주변에 좌우로 크래바스가 있는데  
크래바스 우측 가장자리로 루트가 형성되어 패스까지 대각선으로 오른다.  
중간 중간에 스노우바가 설치되어 있어 런닝빌레이로 오르는 것이 안전하다.  
패스에 올라서면 우측으로 50m정도 위에 있는 바위아래에서 휴식과 간식 먹는다.  
바위에서 100m정도 등반을 하면 큰바위를 중심으로 하여 두 개 루트로 갈라진다.  
우측루트는 사면을 올라가다가 암탐으로 연결된 릿지를 넘어 좌측 루트와 경사가  
완만해진 곳에서 만나게 된다.  
좌측루트는 경사는 급하지만 암탐 아래를 돌아서 설사면을 지그재그 오르다보면  
경사가 완만해져서 별 부담 없이 오를 수 있다.  
심하지 않은 설사면을 좌측 능선쪽을 따라 오르면 넓은 설원지역이 풋볼필드다.  
풋볼필드를 가로질러 완만한 경사가 라이프릿지에 가까워 질 수록 급경사이며  
150m정도 올라서면 라이프릿지 초입이다.  
릿지 전체적으로 길이는 300m 정도되며 이구간도 스노우바가 설치되어 있음.